

청소년 비행화 과정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비행화 예방 집단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이 익 섭** · 김 근 식***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한 접근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요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천과 그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도되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양적 및 질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비행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보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조사에의 일차적 목적은 청소년 비행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행 요인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5개월간 주 1회 씩 총 19회의 집단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목적달성 모델을 따랐으며, 사전·사후조사를 통한 양적 접근과 함께 집단활동 기록 분석 등의 질적 접근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으로 조작화된 집단활동 참여자의 비행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비행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I. 서 론

1. 문제제기

이제까지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한 접근은 주로 개인, 가족, 혹은 사회적 관계망 중 오직 어느 한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문제에 대하여 단면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 특히 청소년 및 비행이라는 매우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슈의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

* 본 논문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진임강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슈의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마저도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라고 불리어 지는 행위를 비롯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이탈하는 행위, 불량한 교우관계, 유해업소 출입, 성(性)적 일탈 행위, 그리고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이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족, 사회적 관계 망이라는 다양한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는 관점을 기본적인 접근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망이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찾게 될 때, 문제에 대한 접근 즉 청소년 비행의 해결 및 예방 또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통합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과 문제의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 청소년 비행화의 예방까지도 포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라는 거시적·환경적 차원과 청소년이라는 미시적·개인적 차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바는 한마디로 청소년 비행이 갖는 문제의 본질의 파악과 함께 실천적인 해결 대안의 검증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 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계획·시행한 후 이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 조사는 청소년 비행 및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청소년 비행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하겠다.

청소년 비행은 한 두 가지의 전문 연구 영역의 대상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청소년 비행 문제는 순수한 연구목적만을 위해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유보되어서도 안된다. 즉,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비행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확대·발전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청소년들이 비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처럼 새롭게 시도되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비행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집단활동 경험의 필요성

모든 사람은 일생동안 다양한 집단경험과 활동을 통해 성장, 발달해 간다. 각 개인들은 가족, 친구집단, 여가집단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화를 이루어 나가며, 바람직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며, 고통스런 시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된다. 특히 모든 것을 갖추어 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가치있고 의미있는 집단경험과 활동은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문제나 역기능적 상황들을 잘 해결하고 적용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와 집단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코노프카(Konopka, 1972)는 집단사회사업방법의 기본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집단사회사업 방법은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에 관여한다. 둘째, 사회적 기능과 집단경험간에는 중요한 상호관계가 있다. 셋째,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람들은 때때로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제는 집단사회사업방법의 실천원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예방활동은 위험의 감소(risk reduction)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감소하거나 제거,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문제들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청소년문제들에 공통되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에는 문제 유발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Dryfoos, 1990).

이와 같이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에 유해한 자극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자극을 극복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최선의 방법은 건전한 집단활동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일생동안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다 건전하고 적절한 집단생활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족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화과정을 습득해 나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등 가족, 학교, 사회 적응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정서적 격동기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집단활동 경험을 통해 건강한 인성발달과 정신건강을 도모함으로써 발달과업으로 인한 위기나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2. 비행청소년 대상 집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성, 대처능력 등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특성들과 지지적인 가족환경, 지지적인 친구관계 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Jessor, 1991; Rutter, 1987). 이러한 보호요인의 개념은 예방이 위험요인들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직접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보호요인을 증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보호요인은 가족 및 학교환경 내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스트레스 등 각종 위험요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주는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그리고 개인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자기성장을 지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들(Weissberg, Caplan, and Harwood, 1991; Zins and Forman, 1988)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시행되고 있는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건전한 학습습관과 성취동기 및 가치관, 친구집단·가족·학교 및 지역사회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능력, 신체건강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과 습관, 범죄·약물사용·사회적 고립·우울증·자살·학교중퇴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lias, 1995).

보트빈과 토르투(Botvin & Tortu, 1988)는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또래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거절기술과 자기주장 기술훈련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기술도 함께 가르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흡연률에 있어 현저한 감소를 보였으며, 마리화나의 사용과 음주에 있어서도 감소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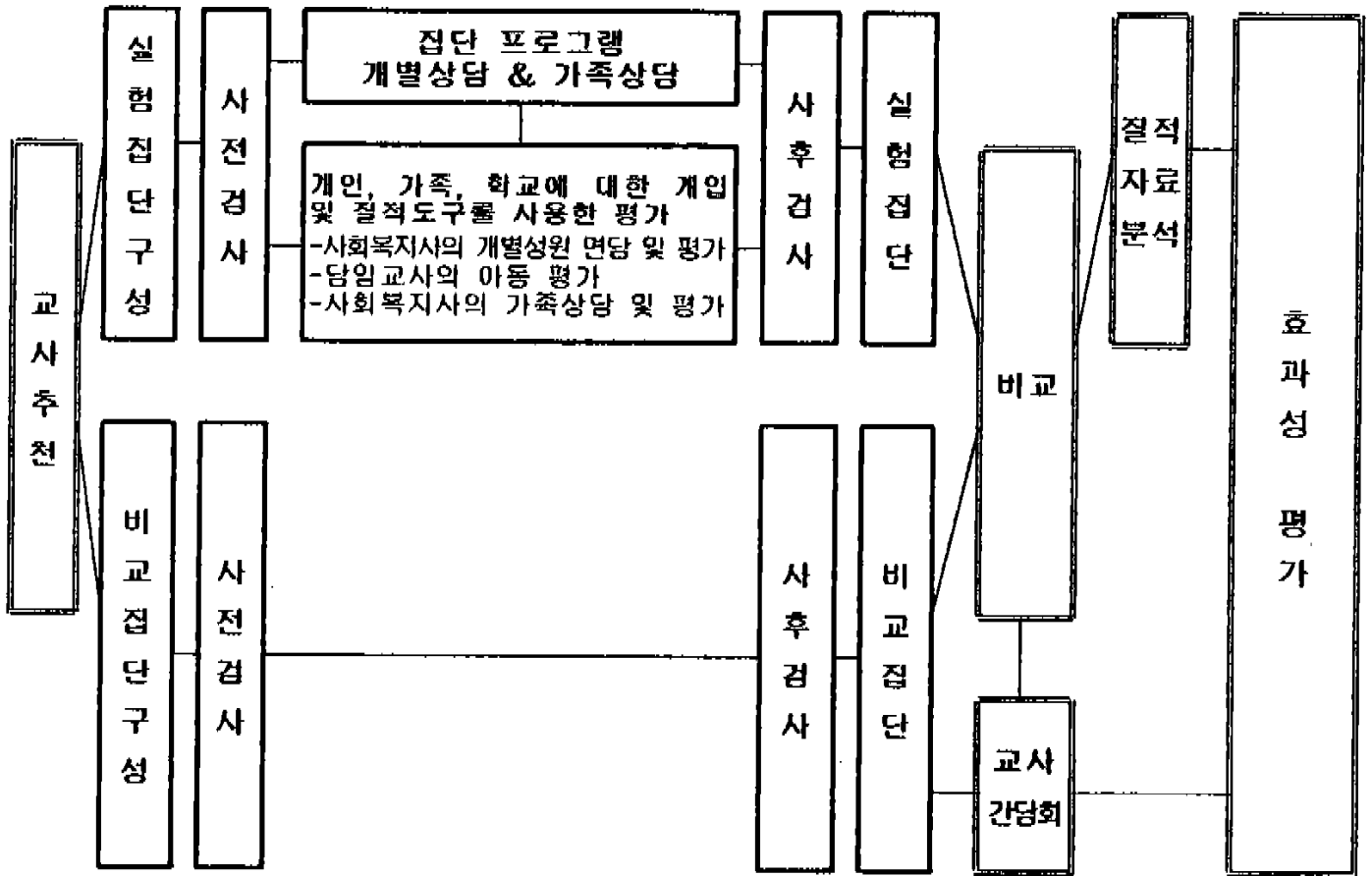
또한 엘리아스와 클래비(Elias & Clabby)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자기통제, 집단참여, 타인에 대한 배려,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기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집단의 학생들은 자기통제, 집단참여, 타인에 대한 배려,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기술의 습득 등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고, 교사가 보고한 문제행동과 교우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에서도 향상을 나타내었다. 그 효과를 6년 후에 다시 측정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 보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폭력이나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비율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lias & Tobias, 1996).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건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기의 집단활동 경험은 성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환경 적응능력과 인성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문제행동을 보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위주의 사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보이면 훈계,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소년원 등의 기관에서는 범법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형사처벌을 하거나 선도교육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문제행동을 보인 청소년들을 낙인찍음으로써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식적으로 파악된 문제청소년들에 대해서만 그 문제행동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교정 혹은 선도하는 노력만 기울이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대다수의 비비행 청소년들,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파악되지 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비행화될 소지를 가진 잠재적 문제청소년들, 또는 문제행동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적지만 부정적인 친구관계나 유해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차원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평가연구(evaluative research)로서 실험설계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는 여러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목적달성(goal attainment)의 개념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이 의도하고 있는 바, 즉 목적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의 기본적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저소득층 밀집 지역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과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가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에 있는 만큼 실험집단은 당연히 앞으로 비행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되는 아동이어야 할 것이다. 즉,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 시기인 1998년 2월 현재, 비행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아동들 중에서 앞으로 비행 행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거나 아동의 가족 및 지역사회 환경 등이 아동의 비행을 촉발시킬 만한 특성을 가진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 2) 결손가족의 아동
- 3) 맞벌이 가족의 아동 (특히, 부모가 비전문직 종사자로서 밤늦게 귀가하여 아동이 낮 시간 동안 방치된 경우)
- 4) 비행성향이 있는 손위형제가 있거나 인근지역에 사는 비행청소년과 친한 아동
- 5) 지난 1년 동안 심리적인 충격을 줄만한 중대사건을 경험한 아동 (예: 母의 가출, 가족폭력, 부모의 사망 등)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볼 때, 본 프로그램의 1차적인 대상자는 위에서 언급한 비행을 촉발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들일수록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행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에 덧붙여 사회복지사 및 교사 등 아동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인들의 판단에 근거해 볼 때 앞으로 학교 부적응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또는 타인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 등 초기 비행적인 태도 및 행위 특성을 가진 아동들 역시 본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학교의 교사들에게 비행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22명의 아동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초기 면접을 진행하고 초기 집단활동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0명의 아동을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교사들의 추천 내용을 근거로 이 아동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제시된 6개의 비행 촉발 요인 가운데 10명의 아동들 대부분은 최소한 2-3개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10명 모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팀이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빈곤지역의 청소년 비행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 아동으로 의도적으로 표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손가족의 아동은 전체 10명 가운데 6명이었으며 맞벌이 가족의 아동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대개 보수가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손가족과 불안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맞벌이 가족의 비율을 합하면 전체의 90%가 되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비행 요인 유무

비행 촉발요인	정□□	정○○	김○○	박○○	이○○	이□□	김□□	서○○	안○○	김△△
거주지역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결손가족	원모가족 부모양육		원모가족	원모가족	전무가족	원모가족 (노정상)				
맞벌이		부·모/모 양육					부·모/사/모 양육	부·모/모/모 양육		
비행형제 또는 선배										
가족폭력	보호자인 백부의 심한체벌			아버지 심한 체벌	아버지 심한 체벌					
충격적 사건			사망							
기 타	*작은 결석 *무책임		*따의 갑작 스런 사망 으로 충격 이 큰 듯 확실했던 아동이 비 행성향어린 이와 어울 리기 시작			*수업에 중 미 없음	*정서불안 *도벽 *비행성향	*금우들과 자주 다름 저속한 발 성 및 성 인 표현을 즐거함	*부모모두 아이에 관심 많고 친밀한 관계 *학기반장 *어른없는 곳에서는 이 아이를 때리 거나 괴롭힘	*아이를중독 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중(父 장애인 프 로그램이 진 행된 기간동 안에는 가족 에 거주)

※ 음영표시는 청소년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입증된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비행 행위를 하고 있는 가족 성원 및 친하게 지내고 있는 비행청소년 유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실험집단 성원 중 단 한 명도 이 요인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비교적 심한 신체적인 폭력을 받고 있는 아동은 총 3명이 발견되어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프로그램 대상자를 의뢰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아동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감에 충격을 줄만한 사건을 경험한 아동은 1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약 3개월 전에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적응적 태도를 보이게 된 경우였다.

비교집단의 경우, 당초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은 실험집단의 대상자를 2배수로 선정하여 제비뽑기를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교사들이 추천해 준 학생들 중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험집단의 2배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교집단의 구성방식을 수정하게 되었다. 즉, 본 연구 팀은 실험집단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면서 프로그램 대상자가 속해 있지 않은 1개 학급 35명 전원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1개 학급은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구성되므로 기타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무선적 표집에 의해 집단을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구성상의 문제로 인해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두집단간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2. 측정도구

효과성 분석을 위한 도구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전 사후 검사지로서 이는 헤어(Hare, B. R.)가 1985년도에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Fischer & Corcoran, 1994)를 본 연구팀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상당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헤어의 도구를 기초로 한 이유는 헤어의 평가도구가 개인 뿐 아니라 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까지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헤어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관계 자아존중감(Peer Self-Esteem), 가족생활 자아존중감(Home Self-Esteem), 학교생활 자아존중감(School Self-Esteem)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를 총합하는 방법으로 전체 자아존중감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단지 개인의 정서와 인식에만 근거한다기 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가족, 또래집단,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헤어의 조사도구를 기초로 개발한 본 연구의 사전사후 검사지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alpha의 값이 친구관계-자아존중감의 경우 .79, 가족생활-자아존중감 .66, 학교생활-자아존중감 .71, 전체 자아존중감이 .85로서 사전사후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사후 검사 외에 프로그램 중에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장적 행동 경향의 증가라는 목표가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아동의 변화 정도 역시 측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델루티(Deluty, R. H., 1979)가 개발한 아동의 행동경향 척도(Children's Action Tendency Scale)을 본 연구팀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델루티가 개발한 이 척도는 자기주장적, 공격적 및 수동적 행동 경향을 측정하는 총 39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3개의 갈등적인 상황 각각에 대해 2개의 보기로 구성된 3개의 응답범주가 제시되어 있는데 조사대상자들은 이 각각의 응답범주에 제시된 2개의 보기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보기들은 수동적, 주장적, 공격적 반응을 조합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조사는 자기주장적 행동 경향 외에 수동적 및 공격적 행동 경향 점수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매우 유용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13개의 갈등상황 가운데 생략되어도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3개 상황을 제외하고 30개 항목²⁾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양적 측정 방법의 한계는 적지 않다. 구조화된 측정 도구는 개인의 변화가 갖는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부분

1) 13개 갈등상황 × 3개 응답범주 = 39개 항목

2) 10개 갈등상황 × 3개 응답범주 = 30개 항목

을 그대로 놓쳐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집단활동 기록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한 요약 및 축어록)
- 2) 개별상담 기록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한 요약 및 축어록)
- 3) 담임 교사에 의한 학교생활 평가(부록 참고)
- 4) 집단활동 중 개별성원이 작성한 내용
- 5) 가족상담 기록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한 요약 및 축어록)
- 6) 사회복지사와 학교교사들과의 간담회 내용 (축어록)

3.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그리고 평가도구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청소년 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과 청소년 비행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비행성향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별된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비행성향의 완화' 보다는 '비행요인의 부정적 영향력 감소'가 효과성 분석의 중심이 되고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긍정적 기능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 비행 및 문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목적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 2) 프로그램 대상자의 가족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3) 프로그램 대상자가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4) 프로그램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시 과업목표와 과정목표로 세분화되는데 전자는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의도했던 목적이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작화한 목표이고 후자는 과업목표를 이루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상의 목표를 의미한다. <그림 2>는 프로그램의 목표, 과업목표, 과정목표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정리한 것이다.

목표1 : 프로그램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향상

<과업목표>

1.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 향상.

<평가도구>

1. 사전사후 검사지(Hare의 Self-Esteem Scale)
2. 질적 자료 전체

<과정목표>

1.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제공.
2. 참여 아동과의 개별 면담 및 전화 상담을 8회 이상 실시.

<평가도구>

1. 프로그램 제공 횟수 확인
2. 개별상담 횟수 확인

목표2 : 프로그램 대상자의 가족생활 적응력 향상

<과업목표>

1.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가족생활-자아존중감 향상.
2. 가족구성원간 관계와 기능 향상.

<평가도구>

1. 사전사후 검사지 중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2. 개별상담 기록
3. 가족상담 내용

<과정목표>

1. 아동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자신의 가족내 역할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실시.
2.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4회 이상 제공.

<평가도구>

1. 프로그램 제공 횟수 확인
2. 프로그램 제공 횟수 확인

목표3 :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스러운 친구관계 형성 유도

<과업목표>

1.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친구관계-자아존중감 향상.

<평가도구>

1. 사전사후 검사지 중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2. 집단활동 기록 및 축어록
3. 프로그램 중 아동이 작성한 문서
4. 개별상담 기록

<과정목표>

1. 친구의 바른 인식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제공.
2. 의사소통·대인관계 기술 향상 관련 프로그램 2회 이상 제공.

<평가도구>

1. 프로그램 제공 횟수 확인
2. 프로그램 제공 횟수 확인

목표4 : 프로그램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과업목표>

1.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학교생활-자아존중감 향상.
2. 아동의 학교 출석을, 과제 수행을 향상.
3. 아동의 수업시간 및 학교에서의 생활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

<평가도구>

1. 사전 사후 검사지 중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2. 출석부 및 담임교사의 평가
3. 교사간담회 기록 및 축어록

<과정목표>

1.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실시.
2. 아동과의 개별상담에서 학교생활 관련 내용을 5회 이상 다룸.
3. 2회 이상의 면담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담임 교사가 대상 아동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유도.

<평가도구>

1. 담임교사와의 면담 횟수 확인
2. 프로그램 제공 횟수 확인
3. 개별상담 내용 및 확인 확인

목표5 : 프로그램 대상자의 자기주장적 행동 경향 증진

<과업목표>

1.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자기주장적 행동 경향 향상.

<평가도구>

1. 아동 행동 경향 척도 (Robert H. Deluty의 Children's Action Tendency Scale)

<과정목표>

1. 자기주장적 행동 경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실시.

<평가도구>

1. 프로그램 제공 횟수 확인

<그림 2> 프로그램 목표 및 측정 도구

본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족, 친구관계, 학교에서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향상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험집단 아동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자주 발견되었으며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이들에게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 및 행동 방식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프로그램 진행 도중 아동들의 자기주장적 행동 경향 증가라는 목표가 추가되었다. 이 목표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본래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적 성격으로서의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비행예방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 프로그램의 실제

1. 프로그램 구조 및 내용

1) 집단활동 내용 및 과정 목표 점검

본 연구에서 시도된 프로그램은 크게 집단활동, 개별 및 가족 상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집단 활동으로 1998년 3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5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총 19회가 진행되었는데 이중 모두 6회가 연극 및 스포츠 관람, 등산, 볼링 등 복지관 외부에서 진행된 외출(Outing) 프로그램이었으며 13회가 복지관 내부에서 진행된 순수 집단활동 프로그램이었다. 전체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의 내용은 과 프로그램별 목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활동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아인식 및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은 총 12회가 제공되었으며 이는 3회 이상을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의 과정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족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한 프로그램은 비교적 이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 2개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긴 했지만 가족과 그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 2개 제공되었다. 즉, 이 목표와 관련하여 2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했던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하겠다.

<표 2> 세부 프로그램별 목표

횟수	날 짜	프 로 그 램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프 로 그 램 의 고 려		
1	3. 28. (토)	우리 하나가 되어요	· 프로그램안내 · 서약서 작성						프로그램 안내 : 집단목표 및 기능에 대한 설명	
			· 파자로친구이용쓰기알래이			○		○		
			· 봉선농구			○				
			· 첫인상 이통 빙고	○		○				
		· 퀴즈풀기:가로열쇠 세로열쇠						프로그램 안내 : 집단목표 및 기능에 대한 설명		
2	4. 4. (토)	· 연극관람						○	다양한 문화활동 경험 집단성원간 친밀감 증진	
3	4. 11. (토)	· 나는요 · 퍼즐 조각 맞추기	○					○	주의집중력, 협동 의식 함양	
4	4. 18. (토)	나의모습	○	△	○					
		너의모습	○		○					
5	4. 25. (토)	· 프로야구 관람						○	다양한 문화활동 경험 집단성원간 친밀감 증진	
6	5. 2. (토)	· 고무찰흙 빚기	○	△					창의적인 놀이 기회 제공	
7	5. 8. (금)	· 효도상품권제작		○						
8	5. 16. (토)	· 뮤지컬 인형극 관람						○	다양한 문화활동 경험 집단성원간 친밀감 증진	
9	5. 23. (토)	· 가치관경매	○					○		
		· 실내놀이			○					
10	5. 30. (토)	· 성격검사	○		△	△				
11	6. 6. (토)	· 불림 + 식사						○	다양한 문화활동 경험 집단성원간 친밀감 증진	
12	6. 13. (토)	· 나의 바램 나의 노력	○	○	○	○				
		· 역할극(마술가계)	○				○			
13	6. 20. (토)	· 일방통행 & 쌍방통행						○	의사소통능력향상	
14	6. 27. (토)	· 자연은 우리 친구 : 어린이 대공원 동식물원 견학						○	정서순화 도모 집단성원간 친밀감 증진	
15	7. 1. (수)	· 퍼즐 조각 맞추기						○	주의집중력향상	
16	7. 11. (토)	·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		
17	7. 18. (토)	· 명탐정 추적놀이	· 동도 튼튼 마음도 튼튼						○	전체 프로그램 정리
			· 적절한 표현 좋아하는 우리사이					○		
			· 아끼는 마음 커지는 사람			○				
			· 노력하는 오늘 꿈을 이룬 내일	○						
18	7. 25. (토)	· 인왕산 등반	○		○			○	인내후의 성취감 체험	
19	8. 29. (토)	· 불림 · 나누는 마음 커지는 사람	○		○			○	개인적 노력에 대한 보상	

* ○표는 해당목표를 직접적으로 다룬 프로그램, △는 약간 연관이 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만족스러운 친구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은 총 12회가 제공되었는데 이중 11개 프로그램이 이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1개 프로그램이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은 당초 이 목표 관련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제공한다는 과정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목표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과정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할 수 있었다. 즉, 당초 2회 이상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실제로도 2회의 관련 프로그램만을 제공하였다. 이중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프로그램과 다소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 각각 하나씩을 기록하였다.

자기주장적 행동 경향 증가라고 하는 마지막 목표와 관련해서는 총 3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보다 1회 많은 4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즉, 본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는 애초 기획했던 프로그램 과정 목표가 모두 실천되었다고 하겠다.

이 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총 12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4회, 집단성원간 친밀감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총 5회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본 프로그램의 과업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집단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고 다른 집단성원 및 담당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촉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되어질 수 없으며 실제로도 이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 진행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요하게 내두된 사회복지사의 활동 내용 및 단계별 과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전체 프로그램 중 1회 활동부터 4회 활동까지 모두 4번의 활동은 집단 초기로서 집단형성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시기였다. 집단 중간단계에서는 집단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병행하여 개별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많은 중점이 두어졌는데 이는 5회 활동부터 16회 활동까지 총 12회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전체 프로그램을 총 정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종결단계는 17회부터 19회까지 모두 3회의 집단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 시기에서는 성원들이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그 동안 이룬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한 활동이 강조되었다.

<표 3> 집단활동 단계별 사회복지사의 주요 활동 및 과업 내용

단계	횟수	날 짜	프 로 그 램	사회복지사 활동 및 과업 내용
사전 단계		210.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내 학교 방문 및 협조 요청 - 프로그램 대상자모집 및 선정 - 비교집단 선정 및 사전검사 실시 - 실험집단 성원 초기면접 및 사전검사실시
초기 단계	1	3. 28. (토)	우리 하나가 되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안내·서약서 작성 • 과자로친구이름쓰기릴레이 • 풍선농구 • 첫인상 이름 빙고 • 퀴즈풀기:가로열쇠 세로열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활동 안내 - 집단목표 및 기능에 대한 설명 - 집단성원들과의 프로그램 계약(서약서 작성) - 집단구조화 - 집단성원 개인 및 가족, 집단전체 및 집단 활동에 대한 평가 - 과업목표와 집단 유지 목표간의 균형 유지 - 집단 활동에 대한 성원들의 능력과 프로그램 참여 동기 촉진
	2	4. 4. (토)	• 연극관람	
	3	4. 11. (토)	• 나는요 • 퍼즐 조각 맞추기	
	4	4. 18. (토)	나의모습 너의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일까 • 친구 그리기 	
중 간 단 계	5	4. 25. (토)	• 프로야구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목표 성취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 - 프로그램 내용 조정 및 재구조화 - 성원의 개별적인 목표 성취 활동 원조 - 가족에 대한 개입
	6	5. 2. (토)	• 고무찰흙 빚기	
	7	5. 8. (금)	• 효도상품권제작	
	8	5. 16. (토)	• 뮤지컬 인형극 관람	
	9	5. 23. (토)	• 가치관경매 • 실내놀이	
	10	5. 30. (토)	• 성격검사	
	11	6. 6. (토)	• 불링 + 식사	
	12	6. 13. (토)	• 나의 바람 나의 노력 • 역할극(마술가계)	
	13	6. 20. (토)	• 일방통행 & 쌍방통행	
	14	6. 27. (토)	• 자연은 우리 친구 : 어린이 대공원 동식물원 견학	
15	7. 1. (수)	• 퍼즐 조각 맞추기		
16	7. 11. (토)	•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종결 단계	17	7. 18. (토)	• 명탐정 추적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적절한 표현 좋아하는 우리사이 • 아끼는 마음 커지는 사랑 • 노력하는 오늘 꿈을 이룬 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의 변화노력 유지와 일반화 - 집단종결에 대한 성원들의 감정 처리 원조 - 보다 적절한 다른 서비스에 집단성원 의뢰
	18	7. 25. (토)	• 인왕산 등반	
	19	8. 29. (토)	불링 나누는 마음 커지는 사랑	

2. 개별 및 가족 상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동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및 가족상담이 이루어졌다. 아동에 대한 개별 상담 횟수는 평균 11회로, 가장 적게 개별상담을 한 아동은 5회 그리고 가장 많이 개별상담을 한 아동은 26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아동과의 개별상담은 8회 이상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대부분의 아동의 경우 이러한 목표는 성취될 수 있었다. 그러나 2명의 아동은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에 응하지 않았으며, 또 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8회 미만의 개별상담만이 행해졌다.³⁾

가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당초 4회 이상의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가족의 90% 이상이 결손가족이거나 맞벌이 가족으로 이들 아동의 부모들이 특정 시간에 모두 모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특히 부모들의 직장이 식당, 노점상, 유산균 음료 배달 등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들 전체가 함께 시간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결국 폐지하게 되었다. 대신 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었다. 가족상담 횟수는 평균 7.12회로 각 아동별로 가족상담 횟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 아동 개인 및 가족 상담 횟수

	개별상담	가족상담	합
안○○	14	9	23
김○○	9	5	14
김□□	8	7	15
정○○	8	9	17
김△△	5	7	12
정□□	26	7	33
이○○	11	6	17
서○○	7	7	14
평균	11.00	7.12	18.12

3)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에 응하지 않는 아동은 박○○과 이□□임.

V.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본 연구는 비행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회사업적 접근 방법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비행'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러한 연구목적 아래 진행된 집단 사회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비행예방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아동 집단 보다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및 전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실제로 더 높은 정도로 향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효과성 분석의 도구로 사용된 자아존중감 개념은 총 4가지로서 단지 조사대상자가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또래집단, 학교 환경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및 전체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곧 주위 환경과의 적절한 상호작용 및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비행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과정에서 실행되었던 비행 예방 프로그램이 실제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비행예방에 도움을 주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또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양한 질적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분석이 1) 10명 미만의 적은 숫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 중심이 되는 분석자료가 주로 집단사회사업 활동과 개별 상담 기록에 의존하고 있으며, 3)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질적 조사연구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개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분석에서 다루어지게 될 많은 내용들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인 것이든 앞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전반적 자아존중감 측면에서의 효과성 검증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자아존중감을 모두 통합한 점수인 전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은 각각 67.57과 74.86으로 프로그램 종결후 약 7.3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평균간의 차이에 관한 짝표본 평균간 차이검증(paired samples t-test) 결과, 이러한 두 점수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집단 아동들의 경우는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은 각각 67.32과 70.03으로 약 2.6점 정도의 향상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집단의 향상 역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사후검사가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 실시됨으로써 많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이나 성적과 관련하여 학기 중에 느꼈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후검사를 받게 되어 사전검사 때보다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구조화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경우 보다 높은 정도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표 5> 전반적 자아존중감 : 사전-사후 검사 비교⁴⁾

집단	처치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사전-사후 변화량
실험	사전	7	67.57	6.02	5.51	6	.001**	7.29
	사후	7	74.86	8.53				
비교	사전	31	67.42	11.60	2.08	30	.047*	2.61
	사후	31	70.03	10.32				

* p < .05 ** p < .001

2.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측면에서의 효과성 검증

가족생활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에서는 24.43점을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28.29점을 기록하여 약 3.9의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4)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참여 정도가 저조한 세명의 아동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나 비교집단은 사전검사에서 26.77점을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29.13점을 기록하여 2.35점 정도 향상하는 것에 그쳤다. 가족생활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비교집단의 향상정도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나 실험집단의 향상 정도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집단의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점수의 향상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 중간에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상황적 변인과 개입된 사실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동이나 부모는 성적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그만큼 양자간의 갈등 역시 감소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교집단의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점수의 향상 원인은 상당부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점수를 비교해 볼 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아동들이 적절한 목표와 방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족 내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표 6>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 사전-사후 검사 비교⁵⁾

집단	처치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사전-사후 변화량
실험	사전	7	24.43	2.23	2.37	6	.028*	3.86
	사후	7	28.29	3.68				
비교	사전	31	26.77	4.12	4.38	30	.000**	2.35
	사후	31	29.13	3.15				

* p < .05 ** p < .001

3.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측면에서의 효과성 검증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는 각각 20.32와 19.55로 약 0.8점 정도가 하락한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는 사전 21.29점에서 사후 22.29점으로 소폭으로나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및 비교 집단의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의 점수 변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의 향상 정도가 많지 않고 또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못

5)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참여 정도가 저조한 세명의 아동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한 것은 실험집단 아동들 중 2명의 점수가 사후검사에서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일부 아동의 경우 다양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보다 대체로 자기자신을 좋아해 주는 소수와만 친하게 어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기자신에 대해 과도한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부터는 다양한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했고 그 가운데 종종 자신이 지지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점수가 하락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하위 차원 및 전체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소폭 향상이 기록되었으나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점수만이 하락한 것은 사후검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에서 어울렸던 친구들과 만나는 빈도가 현격히 줄어들게 된 상황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 사전-사후 검사 비교)

집단	처치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변화량
실험	사전	7	21.29	3.55	1.15	6		.148*	1.00
	사후	7	22.29	3.04					
비교	사전	31	20.32	5.02	-1.40	30		.087*	-0.77
	사후	31	19.55	4.77					

* p > .05

4.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측면에서의 효과성 검증

실험집단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은 사전·사후검사 결과 21.86에서 24.29로 약 2.4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교집단 역시 사전검사 20.32에서 사후검사 21.35점으로 약 1.0점 향상되었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입증되었으나 그 향상 폭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아동의 생활 영역 가운데 학교라고 하는 환경적 변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향상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시도했던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

6)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참여 정도가 저조한 세명의 아동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졌다.

5. 자기주장적 행동경향

실험집단 아동들의 자기주장적 행동 경향은 1차 검사에서는 12.29점이었던 것이 7주 뒤
에 실시된 2차 검사에서는 15.14점으로 약 2.9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검사를 받은 7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점수가 동일하거나 하락한 사람이 없이 모두 향상된
점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장적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했
던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 사전-사후 검사 비교⁷⁾

집단	처치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변화량
실험	사전	7	21.86	2.23	3.10	6	.01**	2.43
	사후	7	24.29	2.69				
비교	사전	31	20.32	4.61	1.71	30	.049*	1.03
	사후	31	21.35	4.09				

* p < .05 ** p < .01

<표 9> 행동경향의 변화 : 자기주장적 태도 사전-사후 검사 비교⁸⁾

집단	검사 시기	N	평균	표준편차	t 점수	자유도	p	변화량
실험	1차 (7.11)	7	12.29	3.73	2.50	6	.047*	2.85
	2차 (8.29)	7	15.14	3.24				

* p < .05

7)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참여 정도가 저조한 세명의 아동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8)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참여 정도가 저조한 세명의 아동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시도된 프로그램은 크게 집단활동, 개별 및 가족 상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집단 활동은 1998년 3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5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총 19회 진행되었는데 이중 6회는 연극 및 스포츠 관람, 등산, 볼링 등 복지관 외부에서 진행된 외출(Outing) 프로그램이었으며 13회는 복지관 내부에서 진행된 순수 집단활동 프로그램이었다.

먼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양적분석의 결과를 보면, 예방프로그램 이후의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상승이 확인되었다. 하위 차원인 가족생활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자아존중감을 모두 통합한 점수인 전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은 각각 67.57과 74.86으로 프로그램 종결 후 약 7.3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두 평균간의 차이에 관한 짝표본 평균간 차이검증(paired samples t-test)결과, 사전과 사후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점수차이가 검증되었다. 반면, 비교집단 아동들의 경우,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이 각각 67.32와 70.03으로 약 2.6점 정도의 향상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집단의 향상 역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본 프로그램 대상자인 실험집단 아동이 당해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사가 선정한 비행위험집단 아동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과 비행간의 관계를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거니와, 이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비행예방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비행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아동들이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대폭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사실은 비행의 위험을 벗어나는 증거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비행예방의 성공을 알리는 첫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기 전에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주의깊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교집단 역시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은 매우 빠른속도로 성장하는 연령이라는 점은 비교집단에서의 유의미한 성장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쟁점이 되는 것은 실험집단의 변화 규모와 비교집단의 그것이 어느 정도 다르냐의 문제이다. 만일, 실험집단에서의 변화가 자연발생적인 변화의 크기를 유의미하게 초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처치의 효과를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 즉, 양 집단이 보이고 있는 변화량의 값이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실험집단에 나타난 변화의 값이 비교집단에서의 그것에 비해 초과하는 경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뿐이다.

양적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분석은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절제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실험집단에서의 변화가 비교집단에서의 그것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처치의 효과에 대한 우호적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그 수치가 보이는 경향성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은 아동들의 변화과정을 관찰하는 본래의 목적과 아울러 양적연구의 해석을 보완하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어 아래의 논의가 주목된다 하겠다.

집단성원 개인에 대한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 사례는 다양한 과정과 여러 차원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의 성장이 동 연령에 나타나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실험집단에서의 자아존중감 성장은 집단활동 과정과 개별상담 그리고 부모와의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처치되고 수정됨으로써 도출된 효과로 평가되며 우연한 현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 집단간에 나타난 차이는 프로그램 효과로 평가되며 그 근거는 사례분석에 나타난 질적연구의 결과로 뒷받침된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비행화과정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행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 동안 비행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각각의 노력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의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또래집단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및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적 요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금번 연구가 시도한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은 개인과 그 환경을 통합하려는 시도이며 그 성공적 결과는 향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통합적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과학연구는 그 대상이 사회적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해 진행상의 어려움과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실험연구와 같은 경우 대상자 확보와 유지는 항상 연구의 결과를 위협하고 제한한다. 이번 연구 역시 예외 없이 연구방법의 한계를 갖고 있다. 가장 큰 한계점은 역시 연구대상자 확보과정에 나타난 주관적 선정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확실한 선정과정이 요청되며 보다 과학적인 실험설계가 기대된다.

프로그램과정에 나타난 제한점도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프로그램이 통합적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족 그리고 또래집단이 충분히 개입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가족이나 교사와의 만남은 물론 프로그램 대상자가 함께 하는 만남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후속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서 이번의 연구결과가 보완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추적조사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Botvin, G. J., and S. Tortu. 1988. "Preventing adolescent substance abuse through life skills training." In R. Price, E. Cowen, R. Lorion, and J. Ramos-McKay (eds.), *14 Ounces of Prevention: A Casebook for Practitioners*(pp. 98-1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eluty, R. H. 1997. "Children's Action Tendency Scale: A Self-reported Measure of Aggressiveness and Assertiveness, and Submissiveness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pp. 1061-1071.
- Dryfoos, J. G. 1990. *Adolescent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lias, M. J. 1995. Primary prevention as health and social competence promo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6, pp. 5-24.
- _____, and S. E. Tobias. 1996. *Social Problem Solving: Interventions in the Schools*. New York: Guilford Press.
- Fischer, J. and K. Corcoran. 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New York: The Free Press.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pp. 597-605.
- Konopka, G. 1972. *Social Group Work: A Helping Proces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pp. 316-331.
- Weissberg, R. P., M. Caplan and R. L. Harwood. 1991. "Promoting competent- enhancing environments: A systems-based perspective on primary preven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pp. 830-841.
- Zins, J. E., S. and Forman. 1988. "Mini-series on Primary Prevention in the Schools: from Theory to Practice." *School Psychology Review*. 17. pp. 539-634.

Abstract

The Study on the Proces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Prevention Program

Lee, Ik Seop · Kim, Geun Sik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perform juvenile group program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The group was consisted of 10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boys who have had such factors that might force themselves to be delinquent, for example, broken family, having delinquent siblings or friends, family violence, and etc. The group had been held once a week and continued for 5 months. Th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is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rough goal-attainment model. The ultimate goal of this program is reduction of delinquency stimulating factors which are operationalized with overall self-esteem - family related self-esteem, friend related self-esteem, and school related self-esteem. Quantitative evaluation is performed by pre- and post-test with Hare Self-Esteem Scale. Case records, family records, group activities records, and reports from schools are analyzed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According to paired samples t-test scores, average overall self-esteem scores of experimental group members were escalated from 67.57 to 74.86, and this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experimental group was bigger and more striking than that of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signed and performed group program in this study would be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from being delinquent.

이익섭 · 김근식

Yonsei Univ. (Tel: 02-3612922 / E-mail: yis93@bubble.yonsei.ac.kr)

Seonam Univ. (Tel: 0671-620-0083 / E-mail: geunsik@tiger.seonam.ac.kr)